

해지환급금

해약환급금이라고도 한다.

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사로부터 돌려받는 일정의 환급액을 말한다.

환급금은 그간 보험료를 냈던 보험계약자가 돌려받는다.

예를 들어) 매달 멤버십 이용료를 지불하며 서비스를 받다가 ▶ 해지 ▶ 일부 적립된 이용료를 돌려받는다

갈아타기가 아닌 부득이하게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라면 금전적인 이유 때문일 확률이 높다. 다달이 나가는 보험료도 부담스럽고 급전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고. (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는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앞으로 해지율이 더 높아진다는 전망이 나온다!) 보험을 해지하면 월 보험료가 나가지 않는 것과 동시에 얼마 정도의 돈이 생긴다. 그간 보험료 납입과 함께 쌓인 일정의 적립금을 환급받기 때문이다. 이 해지환급금 산출 방식은 대표적으로 표준형, 저해지형, 무해지형 세 가지가 있다. 유형에 따라서 환급금을 두둑하게 받을 수도, 아예 받지 않을 수도 있다. 그래서 말인데,

□ 혹시라도 보험을 해지하려거든!

가입한 보험이 어떤 환급 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보자. 더욱이 해지하는 목적이 급전인 경우에는 상품에 따라 보험 해지가 결국 무용지물일 수도 있으니까.

□ 보험 가입하기 전이라면!

환급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각자의 재정 계획에 맞게 가입하자. 최근 보험계에서 핫!했던 '저해지 또는 무해지 환급형' 보험 상품에 논란이 꽤 많아 금감원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노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.